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②	5	③
6	④	7	②	8	⑤	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④
16	②	17	②	18	③	19	④	20	②
21	②	22	②	23	③	24	③	25	①
26	④	27	⑤	28	④	29	②	30	⑤
31	⑤	32	①	33	①	34	①	35	①
36	④	37	①	38	③	39	④	40	①
41	③	42	③	43	③	44	⑤	45	⑤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 표현 전략 사용

발표자는 유토피아의 개념을 제시하는 부분과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각각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의 대답을 듣고 반응을 살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서의 매체 활용

발표자는 ㉠을 활용하여 인류가 오랜 시간 배고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을 현대 사회의 모습이 코케뉴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을 활용하여 청중이 세계 기아 문제의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 점검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기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보려 하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방안을 생각한 것에 해당한다. ‘학생 2’는 식당에서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는 발표를 듣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에 해당한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대화 표현 전략 사용

‘학생 2’는 숲아베기는 나무를 심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5~10년을 주기로 2~3회 실시한다는 연구원의 말을 듣고, 심은 지 15년에서 40여년 정도 되는 나무가 많은 숲은 숲아베기를 통해 숲을 가꾸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연구원의 말을 바탕으로 어떤 숲에서 숲아베기가 필요한 것인지를 추론한 것에 해당할 뿐, 연구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5. [출제의도] 대화 내용 조직

‘학생 1’의 ‘먼저 숲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는 숲가꾸기 사업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며, ‘학생 2’의 ‘숲아베기와 같은 숲가꾸

기 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는 숲가꾸기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학생 2’의 ‘끝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라는 말은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6. [출제의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

‘학생 1’은 2문단에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의 양이 산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 선진국의 숲가꾸기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제시하며 산림 관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① 제목인 ‘나무는 무럭무럭, 숲의 가치는 쑥쑥! 숲가꾸기 사업’은 ‘학생 1’이 인터뷰에서 알게 된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게 제목을 구성한 것에 해당한다.

② 4문단에서는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숲가꾸기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는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을 때의 부작용인 ‘병충해, 태풍’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도 향상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가치를 강조한 것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평가

‘학생 1’은 자신의 초고에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의 양과 연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언급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① 3문단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언급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며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의 ‘쓰여질 수 있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사전에 미리 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봄에 시행한다.’라는 문장은 숲가꾸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을 소개하는 4문단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 작문 **

8.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전략 사용

‘학생의 초고’에서는 금융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금융 교육 시간을 늘려달라는 점과 금융사에서 지원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

(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로, 이 자료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금융 교육에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점과 저축 및 신용 관리 교육과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금융 교육을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는 20대 연령층의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신문 기사로, 금융 이해력 점수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금융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 태도 측면의 점수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향후 금융 교육의 내용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두 자료의 내용은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0. [출제의도]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채로 현대 사회를 사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라는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금융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금융 이해력의 신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의 설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건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문법 **

11.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덴입’은 ‘덴’과 ‘입’이 결합하면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쌍아’에서는 ‘ㅎ’의 탈락이 일어난다. ‘입학’은 ‘ㅂ’과 ‘ㅎ’의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 ‘ㅍ’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나고, ‘칼날’은 ‘ㄴ’이 ‘ㄹ’을 만나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출제의도] 시간 표현

㉠은 동사 ‘내리다’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내린다’와 부사어 ‘지금’을 통해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은 동사의 어간 ‘내리-’에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내릴 것’과 부사어 ‘내일’을 통해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은 동사의 어간 ‘찾아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찾아간’과 동사 ‘내리다’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한 ‘내렸다’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시간 표현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의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의 선어말 어미 ‘-겠-’은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의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 ㉡의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국어사전 정보

‘차다’의 ‘【...에】’, ‘【...으로】’를 보면 ‘차다’는

주어 이외에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다²’는 주어만 필요로 한다.

1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지붕’은 명사 ‘집’과 접미사 ‘-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 규정에 따라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고, ‘마감’은 ‘막다’의 어간인 ‘막’과 접미사 ‘-암’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 규정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다.

**** 사회 ****

□ 출전: 박수근 외, 「민법정론」

16. [출제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제도의 필요성을 밝히며 제한능력자제도의 특징을 제한능력자의 유형,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제한능력자제도가 발전한 과정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제한능력자제도의 의의는 7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나,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④ 제한능력자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절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제한능력자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뒤 변화양상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2문단에서 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제한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① 2문단에서 나이 기준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인 제한능력자로 규정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미성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3문단에서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를 통해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는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4문단에서 ㉠는 상대방의 확정청구권으로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이 된 경우에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문단에서 ㉡는 상대방의 거절권으로, 제한능력자 측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① 2문단에 제한능력자 측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한다고 설명하였고, 5문단에서 ㉠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② 5문단에서 ㉡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④ 5문단에서 ㉢와 ㉣는 모두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⑤ 3문단에서 ㉠~㉣는 모두 제한능력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한능력자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6문단에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다면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배제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했다면, 이는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인 것이므로 취소권이 배제되어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는 10년 내에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A가 성년이 되었다고 구입 당시 제한능력자였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 ②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 측은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A의 법정대리인이 1년 뒤에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 ⑤ 2문단에서 제한능력자 측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아도 A의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2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나’는 암으로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와 ‘틈바구니’라는 말을 떠올리며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남편과의 추억과 남편이 죽은 후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인물 간의 대화가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특정 인물을 풍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편이 죽기 전의 상황과 죽은 이후의 ‘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거나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다.
- ④ ‘나’와 남편의 병원진료 장면, 남편이 손자와 장난하는 장면, 남편의 죽음 이후 ‘나’ 혼자 남는 장면 등으로 장면은 교차되지만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 ⑤ ‘방사선 치료로 시꺼멓게 탄 이마’는 남편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남편의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2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다시 해 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라는 구절을 통해 남편의 병세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나’는 남편이 말한 ‘틈바구니’란 말이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말뜻 이상의 것, 한 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라고 하였다. 따라서 ‘틈바구니’는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기분을 생각

해 보며 방사선 빛이 너무 밝아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과 상통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남편의 공포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나’는 ‘빛에 대한 공포감’을 통해 죽음을 외로움이나 암흑과 연결 지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죽음을 앞둔 남편이 느낄 공포감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유품을 원하는 자식들과 조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모자’는 모두 자신이 간직한다. 이런 ‘나’의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는 자신이 ‘고약한 성깔’에 치받쳐 한 말을 농담으로 받는 남편의 말에서 연민을 느끼며 ‘울어버릴 것 같’게 된다. 이런 ‘나’의 모습에서 남편으로부터 연민을 받는다고 느끼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는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발견하려고 모자를 더듬어 본다. 이런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술 ****

□ 출전: 김영운, 「국악개론」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장구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할 때 점의 부호와 구음,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만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① 1문단의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장단은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의 ‘장단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6문단의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4문단의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5문단에서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 채편의 변죽을 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1문단에서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을 연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에서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 공채로 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북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이 아니라 음악의 연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⑤ 2문단을 통해 <그림 2>가 굿거리장단의 기본이 되는 장단임을 확인할 수 있고, 3문단에서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본이 되는 장단에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

학생의 창작 장단은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보통박은 ‘덩’과 ‘기덕’이, 두 번째 보통박은 ‘쿵’과 ‘덕’이, 세 번째 보통박은

‘쿵’과 ‘더러러’가, 네 번째 보통박은 ‘덕’과 ‘기덕’이 사용된다. 따라서 세 번째 보통박의 점의 종류는 두 가지이므로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덕’이 표시된 정간은 모두 그 다음 정간이 비어 있으므로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한다.

② ‘덕’은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이고, ‘기덕’은 꾸밈음을 붙여 채편을 치는 것이므로 마지막 보통박은 채편만 쳐서 연주해야 한다.

③ 합장단과 접채는 각각 ‘덩’과 ‘기덕’을 가리키는 말로 학생의 창작 장단의 시작과 마무리에 각각 사용된다.

⑤ ‘기덕’은 첫 번째 보통박과 마지막 보통박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세 번째 소박에서 연주해야 한다.

**** 현대시 ****

□ 출전: (가) 정지용, 「춘설(春雪)」
(나) 고재중, 「첫사랑」

27.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는 ‘눈’, ‘얼음’, (나)는 ‘눈’, ‘봄’ 등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D]에서 화자는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을 뿐, [C]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를 허무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① [A]는 문 열자 보이는 먼 산을 마주한 놀라움을 ‘선뜻!’이라고 표현하며, 먼 산에 내린 눈이 마치 이마에 닿아서 차가운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② [B]는 눈 덮인 산이 이마에 닿을 듯이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③ [C]는 얼음이 녹고 바람이 부는 모습을 제시하며 봄을 맞아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E]는 파릇한 새순이 돌아나는 미나리의 모습과 고기의 입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통해 봄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서 봄에 내린 ‘눈’을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낯선 사물로 인식하는 것은 맞지만,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① (가)의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는 시각을 후각화하여 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나)의 ‘난분분 난분분’은 시어를 반복해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은 시어를 변형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나)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는 수많은 도전 끝에 핀 눈꽃을 ‘황홀’로 표현하여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아름다운 상처’는 ‘아름다운’과 ‘상처’라는 모순이 되는 두 시어를 연결하는 역설의 방법을 통해 시련을 겪은 후 봄에 피어나는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인문 ****

□ 출전: 안상헌, 「미치게 친절한 철학」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2문단에서 후대 인류학자인 모스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포틀래치를 교환의 성격을 지닌 호혜적 교환 행위로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포틀래치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모스는 이러한 포틀래치가 집단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래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후대 인류학자들이 포틀래치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초기 인류학자들이 포틀래치를 재물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포틀래치를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하고’라고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라고 하였으므로 경제적 교역은 포틀래치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3문단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 ‘교환을 위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라고 하였다. 따라서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집단 간에 동맹을 맺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어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3문단의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부족 간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규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였으므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부족이 부채감을 덜게 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갖게 하는 규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하여 성립된 규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의 비교

4문단에서 구조주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였고 <보기>의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이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 모두 인간을 결단의 주체로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의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반면, <보기>의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특성과 정

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③ 5문단의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한 반면, <보기>의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현상이자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의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는 ‘현대인의 모습 역시 현대 사회의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의 전통철학에서는 인간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하였다.

⑤ 4문단의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의 전통철학에서는 인간은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고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1문단 ㉠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로, 3문단 ㉡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용돈을 주었다’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의미로, ㉡의 ‘부담을 준다’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의 ‘책을 주셨다’의 ‘주다’와 ㉡의 ‘떡이를 주고’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시간을 주겠다’의 ‘주다’는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여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로, ㉡의 ‘임무를 주겠다’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역할 따위를 가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기쁨을 주는’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의 의미로, ㉡의 ‘힘을 더 주고’의 ‘주다’는 ‘속력이나 힘 따위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의 ‘정을 주는’의 ‘주다’는 ‘다른 사람에게 정이나 마음을 베풀거나 터놓다.’의 의미로, ㉡의 ‘사랑을 주는’의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안민영, 「매화사(梅花詞)」
(나) 신석정, 「향기 있는 사람」

3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A]에서는 매화를 ‘빙자옥질’, ‘아치고질’로 비유하여 눈 속에 핀 매화의 우아하고 높은 절개와 맑고 깨끗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B]에서는 태산목의 꽃을 ‘백련꽃 송이’에 비유하여 향기로운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기능 파악

(나)의 ‘철쭉’은 ‘오색영롱한 철쭉도~아교목보다는 교목이 믿음직해서 더 좋다’에서 아교목과 대조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나)의 ‘철쭉’은 다른 대상과 대조되는 대상일 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은 아니다.

②(가)에서 '철쭉'은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없는 소재로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는 매화를 부각하기 위해 쓰였고, (나)에서 '철쭉'은 믿음직스러워 더 좋은 교목과 비교되어 교목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는 '매화'와 믿음직스러운 '교목'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③(가)의 '두세 송이'는 '눈 기약 능히 지'키는 매화로, '아치고절은 너 뿐'이라 하며 눈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매화를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다른 꽃과 비교하고 있고, (나)의 '두세 송이'는 맑은 향기가 '난'이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다며 '난'과 비교하고 있다.

④(가)의 화자는 '춧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하더라'에서 '두세 송이'를 화자가 사랑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나)의 화자는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에서 '두세 송이'를 맑은 향기를 지닌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가)의 '두세 송이'는 추운 계절에 '눈 속'에서 피지만, (나)의 '두세 송이'는 오월부터 핀다.

36.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은 '내 스스로 향기 지닐 마음의 여유 없음을 슬피할 따름이다'를 통해 '나'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은 '삼류선생의 칭호도 오히려 과분한 것만 같아'를 통해 '나'의 겸손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갈래의 특징과 성격 파악

이웃이 글쓴이에게 성화를 내자 글쓴이는 버드나무 처분을 이웃에게 맡기고 있을 뿐, 글쓴이가 이웃에게 성화를 내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보다 담담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홍야향야로 일삼는' 세속적인 삶에 대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삶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문체는 수필을 쓰는 글쓴이의 개성을 보여주는 특성으로, (나)에서는 '-(으)리라'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⑤ 문 밖에 심은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이웃들에 의해 세 그루만 남게 된 일화가 제시되어 있다.

** 기술 **

□ 출전: 이선명, 「수소전기차」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6문단을 보면, 수소전기차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수소가 가솔린보다 단위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세 배나 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6문단을 보면, 수소전기차의 연료인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할 위험성이 커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6문단을 보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사용한 후 다시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을 보면,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해 연료 전지를 제작해 가격이 비싸므로, 연료제작에 드는 비용을 낮추려면 이를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을 보면, 수소전기차가 움직일 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5문단을 보면, -극(㉠)에서 백금을 넣은 촉매에 의해 수소와 분리된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극(㉢)으로 흘러가며 전기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하여 산소 음이온이 된다.

① -극(㉠)과 +극(㉢)에 들어 있는 백금 촉매는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활성화하고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수소는 수소 양이온으로, 산소는 산소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② 고분자 전해질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 따라서 전자는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극(㉢)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외부 회로(㉡)를 통해 +극(㉢)으로 흘러가게 된다.

③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하여 +극(㉢)으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백금 촉매에 의해 -극(㉠)에서 전자를 잃고 이온화된 것이다.

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와 결합하여 산소 음이온이 된 후,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온 수소 양이온과 결합해 물이 만들어진다.

4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므로 따로 연료 탱크가 필요 없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데, 이때 산소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만 수소는 연료 탱크에 저장한 것을 사용하므로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

② 3문단을 보면, ㉡은 하이브리드차로 전기차에 쓰이는 모터와 내연기관차에 쓰이는 엔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보면, ㉢은 내연기관차로 마찰 제동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 후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 ㉡은 친환경차로 회생 제동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하고 이를 필요할 때 활용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과 6문단을 보면,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과 3문단을 보면,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출발할 때는 전기에너지의 힘으로 모터를 움직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에 쓰인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이다.

① '사람을 맞아들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다른 사람의 어리광 따위에 무조건 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호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태원지(太原誌)」

4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종황은 하늘이 임성에게 전국옥새를 준 것을 통해 보배의 주인이 임성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종황이 보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어 보배를 내어 달라는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

① 임성은 닭의 깃털로 황금빛 지네를 물리친 종황을 하늘이 내신 신이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② 종황은 요괴의 작변을 겪고도 사람이 상하지 않은 것은 임성이 하늘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서해 용왕은 종황의 관상을 보고 종황이 강태공이나 제갈공명과 겨룰 만하지만, 제왕이 될 모습은 아니므로 보배의 임자가 아님을 안다고 하였다.

⑤ 산골짜기에 숨긴 배에 잡혀 있던 임성을 종황이 바위에 앉게 하자, 임성을 본 서해 용왕은 하늘이 정한 일을 범하였다고 말하며 임성에게 사죄하였다.

4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종황이 큰 바다에는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닭의 깃털을 반수에게 준비시켰다고 하였다.

④ 석벽 틈 사이에 어려 있던 붉은 안개와 독기를 없애기 위해 종황이 흔든 것은 부채이다.

⑤ 닭의 깃털을 준비한 사람은 조정이 아니라 종황의 지시를 받은 반수이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A]는 '하늘의 이치를 ~ 사람은 망한다'라는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보배를 내어 달라는 서해 용왕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러 한 것은 임성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빼앗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임성이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① <보기>에서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였고, 이는 임성에게 보배를 준 하늘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종황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임성은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하였고, 이는 서해 용왕이 임성에게 사죄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같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고 하였고, 이는 임성이 종황의 도움으로 황금빛 지네를 없애는 장면과 서해 용왕에게서 풀려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종황에 의해 풀려날 때까지 임성이 배에 묶인 채 잡혀 있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